

## 독해란 무엇인가?

“독해” 파트는 외국어 영역에서 50문제중에 33문제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중 진정한 “독해”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제가 과외 학생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4명 모두 “넌 어떻게 영어공부를 해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4명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문제집을 풀고요, 틀렸나 확인하고, 모르는 단어를 형관펜으로 그어서 밑줄을 치고, 해석이 안되는 문장을 읽어봐요.” 그러면, 전 이렇게 묻습니다. “그 방법이 영어 점수를 올리는데 최적화 된 전략이니?”라고요. 수능 공부를 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적화된 전략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공부하는게 낫나요? 제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건가요? 수능에 최적화된 공부는 무엇인가요? 등등을 물어보시죠. 하지만, 외국어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러한 의심이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양치기”에 “단어 외우기” 등의 단순한 차원의 1차적인 공부만을 하시면서 “나 오늘 100문제 풀었어 공부 많이했다.” 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수능 외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최적의 방법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난 양치기하고 단어외우니까 올랐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난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올랐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방법론이 제 점수를 올려주었고, 저의 과외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믿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문제들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 합니다. 하지만 유형은 말 그대로 유형일 뿐 그 유형 속에 감춰진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글의 주제를 이해하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지문(문제)는 한 지문(문제)에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강조가 되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하는데 저게 뭐 중요하다는거지? 저걸로 뭘 배우라는거야? 등등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원리를 실현 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다음 글의 주제를 요약하시오. (고2 모의고사)

It's true that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ave different cultures. But sometimes we can be surprised at how similar we all are.

For example, Koreans say that they will get a stomachache if someone they know bus a piece of land. This expresses the idea that a person can become so jealous that he or she will become sick. In English, people will say that a jealous person is "green with envy." This expression comes from European culture. In Europe, people believe that the skin of an ill person turns a greenish color. Therefore, when someone becomes "green with envy," it means that they have become sick with jealousy.

우선, 이 문제는 고2모의고사 입니다. 난이도는 낮지만 어떻게 원리가 통하고 어떻게 독해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보여주는 글인데요.

제가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그 Process를 자신의 독해 Process와 비교해 보세요.

It's true that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ave different cultures.

첫 줄, 해석하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 로 요약이 되네요. 그럼 저는 아 이 글은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글이구나 로 생각을 합니다.

But sometimes we can be surprised at how similar we all are.

둘째 줄, 그런데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글은 원래는 다른데, 나라가 달라도 문화는 같다라는 점에 대한 글이군요

따라서, "나라가 달라도 우리는 다 같다!", "WE are the one!"에 관한 글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달라도 우리의 문화는 다 같다! 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제를 이미 찾았습니다. 그럼 그 뒤의 For example 예를들어~ 부분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읽어보면, 다른 두 나라가 나오겠죠. 하지만 문화는 같겠죠. 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저의 예측과 같이 한국과 영국 서로 다른 나라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네요(질투=아픔)이라는 걸요.

이게 저의 독해 Process 입니다. 너무 쉬우셨다고요? 당연하죠. 쉬운 문제니깐요. 일부로 쉬운문제로 예를 들어 드린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의 주제를 찾는데 1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서로다른 나라가, 같은문화 공유구나. 이생각을 가지고 읽으니 한국과 영국이 눈에 딱 들어 오더군요.

그럼 다른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2.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찾으시오(2012 수능)

Living things naturally return to a state of balance. When we are disturbed by forces acting on us, our inner machinery kicks in and returns us to a balanced state of equilibrium. Homeostasis is the word we use to describe the ability of an organism to maintain internal equilibrium by adjusting its physiological processes. Most of the systems in animal and human physiology are controlled by homeostasis. We don't like to be off balance. We tend to keep things in a stable condition. This system operates at all levels. Our blood stays the same temperature. Except for extraordinary exceptions, when people find ways to intervene using methods more powerful than our tendency to equilibrium, our habits, behaviors, thoughts, and our quality of life stay pretty much the same too.

- ① physical balance needed for mental equilibrium
- ② inner mechanism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 ③ general tendency of organisms to keep equilibrium
- ④ major differences in animal and human physiology
- ⑤ biological processes resulting from habitual behaviors

12 수능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독해하는지 비교해보세요.

Living things naturally return to a state of balance.

모든 것들은 균형 잡혀있다. (원말이지?)

When we are disturbed by forces acting on us, our inner machinery kicks in and returns us to a balanced state of equilibrium.

누군가 방해 받으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원래로 돌아간다!

(아! 첫 번째 줄, 균형 잡혀 있다는 말이 이해가 가네요. 원래로 돌아간다는 뜻이군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1,2째 줄 모두 하는 말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 잡혀있다, 즉 항상 같다.)

따라서, "주제는 우리의 몸은 항상 같다." 입니다.

그럼 한 지문(문제)는 하나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죠? 이제 주제를 가지고 다른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Homeostasis is the word we use to describe the ability of an organism to maintain internal equilibrium by adjusting its physiological processes.

항상성은, 유기체들이 내재된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적 적응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은 “우리의 몸은 항상 같다”입니다.

Most of the systems in animal and human physiology are controlled by homeostasis.

동물과 인간의 대부분의 신체적 시스템은 항상성에 의해 컨트롤 된다?

라고 해석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문장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몸은 항상 같다”입니다.

이렇게 그 문장을 “번역” 하는게 아니라, 의미를 “해석” 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의 나머지 문장들 읽어보나 마나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들은 항상 같다”

좀 멋있게 말해보면 “우리의 몸들은 항상성에 의해 지배받는다”

We don't like to be off balance.

우리는 밸런스 밖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 = 우리 몸은 항상 같다.

We tend to keep things in a stable condition.

우리는 안정된 컨디션을 지키는 경향을 가진다 = 우리 몸은 항상 같다.

This system operates at all levels.

이것은 모든 단계에서 움직인다. = 우리 몸은 항상 같다.

Our blood stays the same temperature.

우리의 피는 같은 온도로 유지된다. = 우리 몸은 항상 같다.

Except for extraordinary exceptions, when people find ways to intervene using methods more powerful than our tendency to equilibrium, our habits, behaviors, thoughts, and our quality of life stay pretty much the same too.

길쭉? 해석해보면, 우리 몸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은 **Stary Pretty much the same too.** 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같다” 라구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3번③ general tendency of organisms to keep equilibrium 이네요.

이렇게 독해를 하면 “빠르게, 정확히” 독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문장의 번역들이 의미 있는 글의 내용들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지문(문제)는 한 지문(문제)에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시며 독해의 적용하시면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ㅎㅎ